# 만법이 오직 한마음일 뿐



마음의 노래, 주심부
영명연수 지음
연관 스님 옮김
불광출판사 / 5만원

**회통불교 진수 〈주심부〉 완역**
**'마음' 본질 통찰해 열반 해탈**
**연관 스님 마지막 역경 불사**
**후학들이 2년간 연찬해 출간**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입멸 후 200~300년경에 문헌으로 정리되었고, 이후 교리의 해석과 계율에 대한 각기 다른 의견이 생겨나 20여 개의 부파불교 시대가 열렸다. 기원후 1세기경에는 기존의 부파불교를 비판하고 반야와 보살행을 중시하는 대승불교 시대가 막을 올렸다. 이후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된 불교는 경전의 번역과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교종불교에 이어 7세기 초부터 마음을 직시하고 관조하는 선종불교가 성립됐다.

이 같은 수많은 종파와 학파로 인해 생겨난 갈등과 혼란, 대립을 단숨에 종결한 이가 중국 법안종의 3대 조사이며 정토종의 6대 조사인 영명연수(永明延壽, 904~975) 선사다. 선사는 모든 불교 전통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공존할 수 있다고 갈파했다. 불경과 조사 어록에 근거해 배우고 수행하며, 불교의 요지가 오직 '한마음'에 있음을 잊지 않는다면 결국 깨달음과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영명연수 선사는 경전에 의거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가르침을 펴는 당대 불교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100권에 이르는 〈종경록〉을 지었고, 그 요약본이라 할 수 있는 〈주심부〉 4권을 저술했다. 〈주심부〉는 마음의 노래[心賦] 335수에 517개의 해설[註]을 덧붙여 완성한 책이다. 선사는 이 책에서 〈화엄경〉, 〈법화경〉, 〈유마경〉, 〈대승기시론〉 등 방대한 경론을 인용해,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이 모두 일심(一心)을 가리키고 있으며 각 종파의 종지 역시 오직 한마음뿐임을 입증한다. 이렇듯 불교의 대의를 분명하게 드러낸 〈주심부〉는 여러 교설을 회통(會通)한 저술로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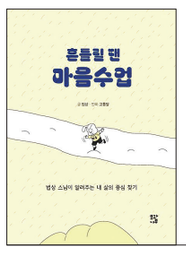
평생을 선 수행과 교학 연찬, 역경에 매진한 연관 스님(사진 왼쪽)이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주심부〉 번역을 후학들이 2년에 걸쳐 연찬해 출간하고, 6월 15일 열린 3주기 추모재에서 봉정했다.

〈마음의 노래, 주심부〉는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는 '마음의 노래' 원문과 한글 번역을, 2부에는 노래에 달린 영명연수 선사의 해설을 우리말로 옮겨 실었다. 3부에는 해설의 원문을 담았다.

10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주심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옮긴 이는 연관 스님(전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이다. 평생을 선 수행과 교학 연찬, 역경에 매진한 스님은 2022년 6월 열반에 들기 전까지 번역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스님의 입적 후 화엄학림 수학제자 오경·오성·법인·정묵·유연·덕인·홍현 스님이 2년에 걸쳐 원고를 읽고 공부하며 본문을 가다듬고 각주를 달아 번역을 마무리 지었다.

오성 스님(제주 선래왓 주지)은 6월 15일 부산 관음사에서 열린 연관 스님 3주기 추모재에서 〈마음의 노래, 주심부〉를 봉정하고 "이 책은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노래이자 치유의 언어"라며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본래 마음을 지키고자 한 선사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 내 삶의 중심 찾기



흔들릴 땐 마음수업
법상 지음
고통달 만화
모과나무
2만2000원

**42가지 주제 4쪽 만화로 엮어내**
**일상 고민에 명쾌한 해법 제시**




기분이 들떴다가 가라앉았다가, 즐거웠다가 우울했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가다 보면 감정을 곧 '나'로 인식한 채 괴로움이 시작된다.

17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를 운영 중인 법상 스님이 이러한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흔들릴 땐 마음수업〉을 펴냈다. 매주 1천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마음 수업에서 나온 고민을 집착, 상실, 고통 등 42가지 주제로 정리해 만화와 함께 담았다.

학창 시절, 삶이 너무도 힘들었을 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을 경험한 법상 스님은 "삶은 힘겹게 헤쳐 나가야 하는 진흙탕이 아닌, 매 순간 감동스럽게 누려야 할 아름다운 놀이터"라고 말한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스님은 고통, 행복, 자괴감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명쾌하고 단순한 해법을 제시한다.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는 "인생의 흐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것은 인연의 몫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통제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집착을 놓아버리라고 제안한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머묾 없이 무상하게 흐를 뿐"이라면서 당장 '멈춤 버튼'을 누르라고 조언한다.

불교 초심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과 각 장마다 4쪽 분량의 컬러 만화를 덧붙여 집중도를 높인다.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주제 영상 법문도 볼 수 있다.

법상 스님은 "마음이 지친 청년, 길을 찾는 수행자, 불교란 낯선 문을 처음 여는 이에게 '너는 혼자가 아냐', '여기, 숨 쉴 틈이 있어'라고 말 걸어오는 책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희정 객원기자

## 유기견 돌보며 얻은 깨달음



개에게 배운다
김나미 지음
판미동
1만7000원

**13년 동물 보호 활동한 종교학자**
**개들에게 사랑·현존·무소유 배워**

30여 년간 성경과 불경을 파고들었던 종교학자가 끝내 도달하지 못했던 진리를 개에게서 발견했다.

종교 전문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인 김나미 씨가 최근 출간한 〈개에게 배운다〉는 '삼천 마리 개들을 구조하며 깨달은 것들'을 기록한 에세이다. 저자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연세대학교 철학과, 스탠퍼드대 종교학과 등 국내외를 오가며 종교학을 배우고 가르쳐 왔다. 2012년 태국에서 지체 장애견 보디와의 운명적 만남 이후, 동물 보호 활동에 뛰어들어 사단법인 '세이브코리언독스'를 설립하고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해 왔다.

이 책은 지난 13년간의 기록과 한국 사회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저자는 "개는 깨우침을 주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기폭제"라며 "30여 년간 불교와 철학을 공부하고 선각자들을 만나도 해소되지 않던 신의 존재, 깨달음, 열반, 도와 같은 '평생의 갈증'을 개들의 삶의 태도에서 비로소 마주했다"고 말한다.

개농장과 도축장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개들, 선천적으로 뒷다리를 쓰지 못해 강물에 쓸려 내려가던 개들을 돌봐 온 저자는 오히려 이들에게서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깊은 위로'를 받음은 물론, 무조건적인 사랑, 온전한 현존, 무소유의 행복을 체감했다고 말한다. 개를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푼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실천 속에서 내면의 기쁨이 "백만 배가 된다"는 체험도 전한다.

저자는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는 인간의 집착과는 달리 "개들은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음을, 집착하지 않아도 충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개의 존재에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삶을 실천하는 태도를 소개한다.

"여전히 개에게 배우는 중"이라는 저자는 "개들을 통해 소유의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면 조금은 만족스러운 삶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개들은 현재에 충실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욕심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가치들이야말로 모든 종교와 철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아닐까요?"

배희정 객원기자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부처님 법 공부**
석천사 진옥 스님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초전법륜의 사성제 법문과 중전법륜의 무상 법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교리들을 알기 쉽게 설하였다.
진옥 설법, 범여 정리 및 교정/신국판양장/440쪽/값 28,000원

복장의식과 점안의식을 여법하게!
**제불보살복장점안의식**
전해오는 여러 의식들을 정리하여, 한문 원문과 한글음, 우리말 번역, 필요한 곳에는 설명까지 붙여서, 누구나 여법하게 의식을 거행할 수 있게 편집하였다.
원철 편저/사륙배판양장/464쪽/값 30,000원

서양 철학자와 동양 승려의 만남
**피터 싱어, 불교와 만나다**
서로 다른 전통과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상가가 세계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윤리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비전을 공유한다.
피터 싱어 · 스자오후이 지음, 정환희 옮김/신국판/284쪽/값 2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